

보도해명자료 (‘14.4.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, 알뜰주유소 물량 공급업체 선정 돌연 ‘휘발유’·
‘경유’ 분리 검토
(‘14.4.22, 경향신문 18면)

□ 산업부는 ‘석유시장 유효경쟁 촉진’과 ‘가격안정화’라는 당초의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알뜰주유소 등 석유유통구조개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(010-5316-5443),
박위규 사무관(010-5529-5473)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알뜰주유소 물량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‘휘발유’와 ‘경유’를 분리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
-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경유를 생산하는 삼성토탈에 맞춰 입찰 방식 바꾸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유사 공급물량(휘발유·경유)에 대해서 보다 경쟁적인 가격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
- 현재 삼성토탈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, 휘발유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 받는 방안과 함께,
 - 경유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,
 - 특정업체의 유불리를 떠나 가장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공급받는 입찰형태를 검토하고 있음